

한정식·오리탕·주먹밥·상추튀김·육전·무등산보리밥·송정리떡갈비

# 미향 광주 특별함 담은 대표음식 선정

市, 공모전·페스티벌·토론회 통해 7개 최종 확정

상징성·차별성·대중성 평가…내달부터 브랜드화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이 탄생했다.

광주시는 지난 13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를 개최하고 광주대표음식으로 7개 음식을 최종 선정했다.

광주대표음식으로 선정된 7개 음식은 광주한정식, 광주오리탕, 광주주먹밥, 광주상추튀김, 광주육전, 무등산보리밥, 광주송정리떡갈비 등이다.

이중 ▲‘상징성’ 광주주먹밥 ▲‘차별성’ 광주상추튀김 ▲‘대중성’ 무등산보

리밥 등 3개 부문의 대표 음식을 각각 1개씩 선정, 미래전략 음식으로 집중 육성한다.

광주시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광주 대표음식을 선정하기 위해 지난해 11월부터 광주음식 공모전, 스토리 공모전, 광주대표음식 페스티벌 행사 및 100인의 시민이 참여한 토론회를 개최해 시민의 의견을 반영한 대표음식 선정 작업을 추진해왔다.

광주음식 공모전과 스토리 공모전을 통해 추천된 음식은 광주대표음식선정

위원회에서 광주대표음식 후보음식군으로 9개 음식을 선정하고 100인 토론회를 거쳐 3개(상징성, 차별성, 대중성) 부문의 음식을 최종 확정했다.

100인 토론회 집계결과 총 득표 순위는 광주주먹밥, 무등산보리밥, 광주상추튀김, 광주송정리떡갈비, 광주오리탕, 광주육전, 광주한정식, 광주에호박찌개, 광주팔각국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부문별 순위에서 상징성은 광주주먹밥, 무등산보리밥, 광주송정리떡갈비 등의 순으로, 차별성은 광주상추튀김, 무등산보리밥, 광주오리탕 등의 순으로, 대중성은 광주상추튀김, 광주주먹밥, 무등산보리밥 등의 순으로 각각 나타났다.

이에 따라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는 광주대표음식 선정결과와 이에 따른

정책 권고사항 등을 작성해 전달하고, 광주시는 이를 반영해 6월부터는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광주대표음식 상품화를 위한 조리법을 개발해 표준화 및 다양화한다.

이 밖에도 시민들과 함께 광주맛집을 선정해 광주대표음식 브랜드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기획활동을 추진한다.

김일용 시 복지건강국장은 “시민들과 광주대표음식 선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광주만의 특별함을 담은 대표음식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며 “지역의 소중한 자원인 광주음식의 미래적 가치를 발견하는 뜻깊은 여정이었으며, 선정된 광주대표음식을 상품화·브랜드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권범기자

제21회 ‘여성이 뽑은 최고 명품대상’

## 전남 친환경쌀 13년 연속 선정